

광주신세계, 버스터미널 부지 백화점 짓는다

**백화점 옆 이마트 부지 확장 이전안 백지화
 유스퀘어 문화관 증축통해 백화점 확장 할 듯**

광주신세계가 기존 백화점 확장 계획을 변경했다. 현 백화점 옆 이마트 부지에 신축 이전하기로 했던 애초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는 대신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금호 유스퀘어문화관까지 백화점을 확장하는 안으로 급선회 한 것이다.

광주시와 ㈜신세계·금호그룹은 27일 오전 시청사 3층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복합화를 통한 랜드마크 조성에 적극 협력한다

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광주신세계 확장은 이마트 부지에서 유스퀘어문화관으로 이전 추진하고, 버스터미널 일대를 광주주 대표 랜드마크 복합시설로 조성하며, 지역 인력 우선 채용 등 다양한 상생 방안 마련을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광주신세계는 사업비 9000억 원을 들여 지금보다 영업 면적이

4배나 늘어난 신축 백화점을 바로 옆 이마트 부지와 주차장 부지에 짓겠다는 계획을 시에 제출했다. 시 도시계획·건축공동위는 심의 끝에 신세계 측에 '7가지 사항을 보완해달라'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공동위의 앞선 결정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던 광주신세계는 당초 계획을 변경, 현 백화점 건물과 연결돼 있는 금호 유스퀘어문화관까지 백화점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이날 3자간 업무협약을 통해 밝혔다. 기존 유스퀘어문화관을 증축, 백화점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다.

광주신세계가 기존 계획을 변경하면서 그 동안 진행했던 교통영향 평

가·지하차도 신설·금호월드 등 주변 상권과의 상생 방안 등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시 관계자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용적률이나 교통 문제 등 백화점 확장에 따른 각종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 편의성·투명성·공정성에 기초, 각종 인·허가 절차 등에 있어 특별시비가 일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구 광천동에 자리한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은 부지면적 10만1150㎡·건축연면적 13만9760.38㎡ 규모로, 1992년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조일상 기자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착공식

27일 오후 광주 북구 삼각동 418번지 일원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 부지에서 정·관계 인사와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이 열리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첫삽'...2025년 완공 연간이용객 50만 전망 "지역 경제 활성화"

광주 지역 30년 숙원인 운전면허시험장이 27일 첫 삽을 떴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 을)은 27일 "제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한 운전면허시험장 착공식이 이날 오후 면허시험장 부지인 광주 북구 삼각동 418번지 일

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 의원과 같은 당 조오섭 의원,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 광주시의원, 광주 북구의원, 도로교통공단 이주만 이사장,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축사에서 "1997년 광주

면허시험장이 나주로 옮겨진 후 지역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며 "면허시험장이 2025년 완공되면 30년 만의 주민 숙원이 해결되고 불편도 해소되는 동시에 연간 이용객 50만 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사업비 328억 원(전액 국비)이 투입되는 광주면허시험장은 북구 삼각동에 연면적 4만210㎡ 규모로 건립된다. 2025년 말 완공돼 2026년부터 본격 운영될 전망이다.

전국 15개 시·도에 27개의 면허시험장이 있지만, 광역단체로는 유일하게 광주만 면허시험장이 없어 시민들의 불편이 적잖았다.

이에 이 의원은 면허시험장 신설을 1호 공약으로 정한 뒤 국정감사,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예산 확보와 조기 건립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됐다.

/김도기 기자

전남 청년 맞춤형 만원주택 속도 낸다

내달 1일까지 청년 대상 주택 선호도 등 설문조사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전남도가 추진하는 청년 주거정책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전남도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 선호도와 주거 의식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12월1일까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정책 수혜 대상인 청년·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시설, 주택 규모 등을 조사해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의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진행한다.

설문조사 참여는 전남도 대표 누리집 '소통→설문조사' 페이지와 정보누리(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설문 문항은 총 31개로 '지역 정주 의식', '주거 의식', '주택 선호도', '선호 청년정책과 미래' 등이 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지역소멸 위기를 겪는 16개 군에 1차로 최소 50가구 이상의 임대아파트를 신축해

단돈 1만 원의 임대료로 청년·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 지자체는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목포·순천·여수·나주·무안을 제외한 16개 군 지역이다.

호남지방방계청이 지난 10월 발표한 '격자 통계로 보는 호남권 지방소멸 변화상'에 따르면 전남은 기존 무안군을 제외한 16개 군만 소멸위기 지역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최근 시 지역인 여수시와 나주시도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남도의 분석이다.

이에 전남도는 한 명의 청년이라도 더 지역에 정착하도록 청년의 의견과 취향을 반영한 청년 맞춤형 만원주택 건설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조병설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수요자인 청년 의견을 대폭 반영해 청년이 실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호 기자

장흥에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총사업비 370억원...2028년 준공 목표

장흥군이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유치에 성공했다.

27일 장흥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전남 국민안전체험관을 장흥 우산리 우드랜드 일원에 조성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행안부는 올해 6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공모를 실시했다.

모두 13개 지자체가 참가한 이번 공모에서 장흥군은 부지 사전매입, 차별화된 지역 특성 프로그램을 앞세워 유치전에서 승리를 거뒀다.

공모를 주관한 행안부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심사위원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종합해 대상 지역을 선정했다.

장흥을 우산리 일원에 조성되는 전남 국민안전체험관은 총 사업비 370억원(국비120, 도비125, 군비125)이 투입된다.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6000㎡

규모로 2024~2028년까지 5년 동안 설계·시설결정·공사를 진행하고 2028년 문을 열 예정이다.

전남 국민안전체험관은 8개 체험존과 26개 체험시설로 구성된다.

장흥군은 전남 국민안전체험관이 조성되면 연간 20만 명이 이상이 체험관을 방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입인구 증가와 400여명의 일자리 유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파급효과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소방, 재난, 산업 안전과 교육을 아우르는 종합 안전체험관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임민기 기자

5개 자치구 여성친화도시 지정 2면	
광주 정치권 셈법 분주	3면
동부경찰서 신축 청신호	9면

스윙 분석하여 맞춤전문

나의 스윙과 특징을 파악하고 나면 나에게 맞는 장비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다

- 맞춤 클럽 제작
- 그립&샤프트 교체
- 길이교정
- 골프채 수리 및 맞춤 전문
- 라이&로프트 조정
- 스윙 분석
- 피팅 전문

골프박사&피팅

코로나 이후 골프에 관심이 높아지며, 기존 고급 스포츠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대중 스포츠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에 골퍼들은 맞춤 클럽(수제작)으로 눈을 돌렸고 아마추어 골퍼들은 클럽 피팅을 통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클럽을 구매하는 것에 이질감을 가지지 않았다.

2030 세대의 새로운 골퍼들이 이 문화를 바꿔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제작 클럽을 구매하고 피팅하는 문화가 급속도로 상층화되면서 대중화 되어가고 있다.

광주 피팅전문업체 골프박사 사장인 대표는 "어떤 스포츠 종목의 선수든 본인에 맞는 장비 및 기구를 가지고 시합을 나가는 것이 당연하며, 골퍼는 특히 더 섬세하고 예민한 운동이라 본인에게 맞지않은 장비를 가지고 스윙을 한다면 최대 효과를 볼수없다"고 말했다.

아마추어 골퍼는 특히 본인에게 잘 맞는 옷을 입혀야 재미있고 골퍼를 할수있을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서경선 대표

H.P 010-3624-7875

광주시 북구 하남대로 603, 2F
 Tel. 062-523-2522 E-mail, sks0040@hanmail.net